99.9 경기방송

2015년 06월 29일 (월)
종합

김포~연천 '평화누리길' 업무표장·서비스표 등록

DMZ 접경지역 김포~고양~파주~연천 잇는 191㎞ 트래킹 코스
[경기방송=김칠호 기자] 김포에서 연천까지 휴전선을 따라 걷는 '평화누리길'이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완료하고 독점적 명칭 사용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고양~파주~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 12개 구간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명품 트래킹 코스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평화로운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 '평화누리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으로 개인이나 영리목적으로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평화누리길 일원의 우수 식당·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관련 행사시 홍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4월 25일 연천을 시작으로, 5월 16일 파주시에서 개최됐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9일과 10월 19일 각각 고양과 김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평화누리길 팸투어,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평화누리길 클린티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칠호 seven5@nate.com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11.3 cm

경인방송 iTV FM

2015년 06월 29일 (월)
지역

경기도, 평화누리길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 완료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는 평화누리길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록조치로 도는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의 상표의 일종을 말합니다.

도는 향후 평화누리길 일원의 우수 식당.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관련 행사시 도정 홍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념품 제작과 행사시 평화누리길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명품 트래킹 코스로, 2010년 5월 8일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14.4 X 9.8 cm

파이낸셜뉴스

2015년 06월 30일 (화)
25면 전국

경기도 '평화누리길' 독점사용권 확보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9일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평화누리길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 업자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 상표의 일종이다. 이번 등록조치로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도는 향후 평화누리길 일원의 우수 식당·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관련 행사시 도정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행사시 평화누리길의 이미지를 지속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명품 트래킹 코스로,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어 이 길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극찬을 받아오고 있다.

도는 지난 2010년 4월 공모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평화로운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두가지의 의미를 담은 '평화누리길'이라는 명칭을 선정했다.

10.2 X 10.3 cm

서울경제

2015년 06월 30일 (화)
31면 전국

'평화누리길' 경기서만 씁니다

업무표장 등록 등…독점 사용 권한

경기도가 앞으로 '평화 누리길'의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도는 29일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영리목적으로 평화누리길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고양·파주·연천을 잇는 총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명품 트래킹 코스다. 도는 지난 2010년 4월 공모를 통해 이 길의 이름을 지었다.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평화로운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길은 같은 해 5월 8일 개장됐다. 도는 이번 등록조치로 앞으로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도는 앞으로 평화누리길 일대 우수 식당과 숙박시설을 선정, '평화누리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co.kr

6.0 X 13.0 cm

인천일보

2015년 06월 30일 (화)
03(경기판)면 종합

'평화누리길' 명칭 사용권한 확보

도, 업무표장 등록 마쳐

경기도는 29일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평화누리길의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조치는 평화누리길의 위상정립은 물론 개인이나 영리목적으로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된 업무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 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의 상표의 일종이다.

도는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향후 평화누리길 일원의 우수 식당·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련 행사시 도정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며 기념품 제작에도 이미지를 지속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11.6 X 8.3 cm

경기신문

2015년 06월 30일 (화)
02면 종합

道 "평화누리길 브랜드 맘대로 쓰면 큰일나요"

업무표장·서비스표 등록… 독점권한 확보
민간단체 추진 관련 행사시 도정 홍보 병행

경기도는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쳐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의 상표의 일종이다.

도는 그동안 평화누리길의 위상정립 뿐 아니라 개인이나 영리목적의 브랜드 무단 사용을 방지, 안정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또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독점 사용도 가능해진다. 도는 앞으로 평화누리길 일원의 우수 식당·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관련 행사시 도정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행사시 평화누리길의 이미지를 지속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평화누리길은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4개 시·군(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의 트레킹 코스로 12개 구간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0년 4월 공모를 통해 이 길의 이름을 지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평화로운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평화누리길은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트레킹 코스"라며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누리길을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23.7 X 8.2 cm